

## 경부선 대전도심통과구간 1단계 하선 운행선 변경 완료

- 경부2단계구간 2014년 완전개통 -

충청본부(본부장 이양상)는 지난 18일 일요일 새벽 세찬 한풍을 무릅쓰고 밤샘작업 끝에 경부2단계 대전도심통과구간 총 5단계작업 중 1단계 하선 운행선 변경 공사를 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합동으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완료하였다.

경부선 대전조차장~세천간 복복선 공사를 위하여 기존 경부선 구조물(지하차도, 교량 등) 개량 및 신설코자 특수선을 부설하고 현 경부선 하선 운행선을 변경하는 구간으로 서기(환)164k417~170k469(L=6k052m) 지점이 그동안 지상화, 지하화의 논란 속에 대전도심통과구간 노반공사를 착공한지 2년 9개월 만에 운행선 변경을 하였다.

철도공사와 단계별 임시배선 계획에 따른 선로차단작업 협의(승인) 과정에서 남쪽 승강장 임시 출대합실 설치, 기관차 승무원 임시통로 준치 등 운행선 변경일을 목전에 두고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다.

특히, 상호간에 가장 논란이 된 사항은 선로 유효장 및 동일 홈 열차 동시 진·출입 관련 사항으로 공단은 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하여 설계, 시공할 것을 주장하였고, 공사는 운전취급규정(열차운전세칙, 운전취급세칙)을 적용하여 철도건설을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한, 논란 끝에 KTX-산천 중련(L=402m) 운영을 고려한 승강장 홈 연장#5 : 22m, #6 : 19m) 시공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져 목재로 임시승강장을 연장 시공하게 된 것이다.

이양상 본부장은 당일 새벽까지 다양한 종류의 공사용 장비의 조합과 체계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재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함께 노력한 철도공단, 철도공사,

협력사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3년 후인 2014년 경부2단계구간을 완전개통하여 대전역 본 역사 증축이 완료되면 중부권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전·충청권 철도의 발전상이 데자뷰처럼 눈앞을 스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충청본부는 1단계 신호 연동장치 장애를 교훈 삼아 앞으로 2단계부터는 더욱 철저한 준비와 사전 시뮬레이션 등으로 완벽한 성능과 품질로써 철도이용객들께 더욱 사랑받는 철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충청본부 박노정 기자)



## 철도건설 터널 계측관리 특별교육 시행

- 터널계측 등 품질안전관리 역량강화 역점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김영우)은 지난 14일 3층 대회의실에서 본사 및 지역본부 사업부와 건설현장의 시공사 및 감리를 대상으로 '철도건설 터널분야 안전시공을 위한 계측관리'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호남고속철도 터널붕락, 경부고속철도 방천터널 함몰, 식당터널 철근붕괴 등 건설현장의 터널분야에서 건설 및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됨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터널계측 등 품질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이날 교육은 NATM 공법의 기본개념, 터널의 공사 및 유지관리 계측 이론과 실무, 터널계측의 개선방안과 한강하저터널의 시공, 유지관리 계측 결과 종합분석 등 다양한 실무 경험도 소개 되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업무추진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이번 특별교육은 지난 12월 7일부터 23일까지 각 지역본부별로 순회하며 실시되었다.

한편 경영지원안전실은 철도건설현장의 품질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공단, 감리단, 시공사 등 주체별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였고, 취약개소 관리기준 개선과 업무절차의 간소화, 사고조사 및 재난관리 등 위기관리 능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영안전지원실 박종식 기자)



## '11년 녹색철도자문회의 개최

- NGO, 환경전문가 등 10명의 자문위원 참여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김영우)은 지난 15일 충남대 박재욱 교수,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 등 외부자문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녹색철도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환경단체 대표로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홍모 사무처장, 종교계에서는 대전서구노인복지관 관장 장국환찬민 스님, 학계에서는 충남대 박재욱 교수, 충주대 문석기 교수, 우송대 어성욱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상기 박사가 참여하였으며, 기업체 대표로 도화엔지니어링 김동기 부사장, 선구엔지니어링 박승진 부사장이 참여하여 'Eco-Green 철도구현을 위한 철도환경 개선방

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우송대 어성욱 교수는 철도의 폐자갈, 폐침목의 무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여야 재활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홍모 사무처장은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교통이 재편되고 있으므로 철도와 연계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녹색철도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실장은 "자문위원의 고견은 향후 철도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철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하였다.

(경영지원안전실 정진강 기자)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덕하차량기지 건설공사 일괄입찰 설계심의 완료

건설본부(본부장 김병호) 건축/설비처는 지난 20일 설계평가회의를 마지막으로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덕하차량기지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설계심의를 완료하였다.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은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경전선 부산~마산, 울산~포항 등 이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의 검수 및 유치를 위한 토목, 궤도, 건축, 검수, 시스템 등 11개 분야 복합공종의 플랜트 공사이며 시설규모는 56편성 경·중수선 시설, 유치 28편성이며 부지면적은 약320,148㎡이다.

덕하차량기지공사는 지난 12월 1일 워크숍 및 공개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답사(12/7), 기술검토 회의(12/14), 설계평가회의(12/20)까지 총 20일간 진행되었다. 입찰에는 총 3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설계평가를 위하여 10개분야 19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하였다. 평가 결과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자격자로 선정되었다. 향후 계획은 실시 설계 및 인허가 승인 등을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고 '1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김병호 본부장은 연말 바쁜 일정에도 설계평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준 심의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향후 철도건설은 과잉설비를 지양하고 시설규모 최적화를 통한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철도의 이미지와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선진화된 차량기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본부 강대열 기자)



## '네팔 고위공무원 대표단' 공단 방문

- 본사 교류회 및 오송고가 건설현장 시찰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강근식)는 지난 13일 네팔정부 고위공무원 대표단과 우호적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네팔 재무부 등 정부부처 국·과장급 2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KOICA초청으로 방한하여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네팔경제 개발 전략과 과정(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NEPAL)을 연수하는 중이며, 금번 공단 방문은 산업시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강근식 본부장은 이날 네팔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철도는 '04년 KTX 개통을 통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되면서 세계 수준의 철도강국으로 도약하였다고 소개하고, 최근 네팔정부에서 철도건설을 국가 최우선과제로 삼아 추진한 국제입찰에서 공단을 포함한 한국컨소시엄이 전기 철도 실시설계와 카트만두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용역 2건을 동시에 수주하였음을 알리고 네팔정부의 공단에 대한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네팔 재무부 바이쿤타 아들 수석국장은 네



팔의 철도인프라 건설을 위하여 공단에서 건설 노하우 및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네팔 대표단 일행은 본사에서 교류를 마친 후, 공단 홍보관에서 4D 영화를 관람하였으며, 대전역에서 KTX를 시승하고 호남고속철도 오송고가 건설현장을 시찰하였다.

시설사업본부는 네팔 철도사업의 완벽한 수행과 향후 발주가 예정된 네팔 룸비니(Lumbini)지역 실시설계 사업 등을 추가로 수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설사업본부 김재홍 기자)

## 공단, 호남고속철도 '정읍사무소' 개소

사업공구에 대한 효율적 관리 기대

호남본부(본부장 임영록)는 지난 21일 광주에 위치한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구간(익산~광주·송정간 106km) 담당사무소를 정읍으로 이전하였다고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그간 호남고속철도 사업구간을 담당하는 사무소가 광주에 위치하고 있어 연간 1억 7천만원의 사무실 임대료와 장거리 출장이 많고, 시공·안전관리의 적시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정읍으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공사 현장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 이동거리 단축에 따른 차량운영비 등 연간 약 8000만원이 절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 약 10조 6000억원이 소요되는 호남고속철도사업은 2014년 말 1단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익산~광주·송정 간 48.7%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호남본부 김권삼 기자)



## '소외계층 겨울나기' 사랑나눔 활동 전개

충청본부(본부장 이양상) KR봉사단은 지난 13일 사회공헌활동결연을 맺은 대전 밀알복지관을 찾아 재가 장애인 월동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36가구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쌀, 보자기구 등을 전달하였으며, 가구마다 친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방풍작업을 도와주는 등 훈훈한 이웃 사랑나눔을 실천하였다.

또한, 봉사단은 인근 샘골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결손가정 아동들의 공부방 개보수 작업지원과 학습지도를 도와주었으며, 내년도 공단 달력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것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소외 계층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KR봉사단은 이웃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본부 임영숙 기자)

